

古新羅時代の 재갈과 積石木槨墳築造者들

—新羅의 國家形成과 관련하여—

李 喜 寬

- | | |
|----------------------|----------------------|
| I. 머리말 | IV. 古新羅時代 재갈의 流入과 積石 |
| II. 古新羅時代 재갈의 諸類型과 그 | 木槨墳築造者들—新羅의 國家形 |
| 機能 | 成과 관련하여— |
| III. 古新羅時代 재갈의 出土現況과 | V. 맺음말 |
| 그 特徵 | |

I. 머리말

고대 사회에서 사람들이 말(馬)을 타기 시작한 것은 사회 발전의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무엇보다도 그것은 당시의 생활권 및 교역권의 확대와 전쟁술의 비약적인 발전을 가져왔으며, 그와 같은 변화가 고대 국가 형성의 중요한 요인이 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일찍부터 말에는 그것을 잘 다루기 위한 馬具들이 착장되어 왔는데 그 가운데에서도 특히 중요한 것이 재갈이었다.¹⁾

그런데 慶州地域의 고분에서는 한반도의 다른 어느 지역의 고분에서도 다도 많은 수의 재갈이 출토되었다. 그리고 그 대부분은 古新羅時代의 積石木槨墳에서 출토된 것들이었다. 이러한 사실은 그 당시의 재갈과 적석

- 1) 우리 나라에서 출토된 재갈에 관한 연구로는 다음과 같은 논문들이 있다.
- 鈴木治, 「朝鮮半島出土の轡について」, 『朝鮮學報』 13, 1958.
 - 金基雄, 「三國時代의 馬具小考」, 『白山學報』 5, 1968.
 - 伊藤秋男, 「韓國における三國時代の鑣轡について」, 『韓』 3-1, 1974.
 - 金基雄, 「馬具」, 『日本文化의 源流로서의 比較韓國文化』, 1980.
 - ———, 「武器와 馬具」, 『韓國史論』 15, 1985.
 - ———, 「韓國古代의 馬銜考」, 『三佛金元龍教授停年退任紀念論叢』 I, 1987.

목곽분의 축조자들이 깊은 관련을 맺고 있었음을 의미하는 것이며, 이에 대한 검토는 新羅의 국가 형성 과정을 해명할 수 있는 단서를 제공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 본고에서 古新羅時代의 재갈과 적석목곽분 축조자들에 대하여 검토해 보고자 한 까닭이 바로 여기에 있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필자는 다음 몇 가지 문제를 집중적으로 살펴 보고자 한다. 첫째로, 古新羅時代 재갈의 유형과 그 기능에 대하여 검토해 보겠다. 둘째로, 古新羅時代 재갈의 출토 현황과 그 특징에 대하여 알아보겠다. 마지막으로, 古新羅時代 재갈의 유입과 적석목곽분 축조자들의 관계를 新羅의 국가 형성에 초점을 맞추어 살펴 보겠다.

이와 같은 검토를 통하여 新羅의 국가 형성 과정에 대한 이해가 보다 심화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

Ⅱ. 古新羅時代 재갈의 諸類型과 그 機能

古新羅時代의 재갈은 일반적으로 말의 입안에 물리는 재갈쇠와 재갈쇠가 옆으로 빠져나오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재갈쇠의 양쪽에 단 재갈멈추개와, 이것들과 고삐를 연결해주는 고삐이음대로 이루어져 있다. 그런데 이 가운데에서 재갈의 시대적·지역적 특성을 가장 잘 반영하고 있는 것이 재갈멈추개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재갈멈추개의 형태에 따라서, 재갈을 I字形·S字形·圓形·板形으로 분류하여 검토해 보고자 한다. 그리고 필요할 때에는 百濟·伽倻·高句麗·中國 등의 지역에서 출토된 재갈에 대해서도 언급하기로 하겠다.

I자형 재갈은 재갈멈추개가 I자형의 直棒으로 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圖 1—④). I자형 재갈의 재갈멈추개로는 보통 鐵棒·木棒·鹿角 등이 사용되었는데, 鉸具形金具나 U字形金具, 또는 가죽끈 등을 사용하여 재갈쇠 양끝의 고리에 연결시켰던 것 같다. 그러므로 재갈멈추개가 木棒이나 鹿角이었던 경우에는 재갈멈추개는 대부분 부식되고 鉸具形金具나 U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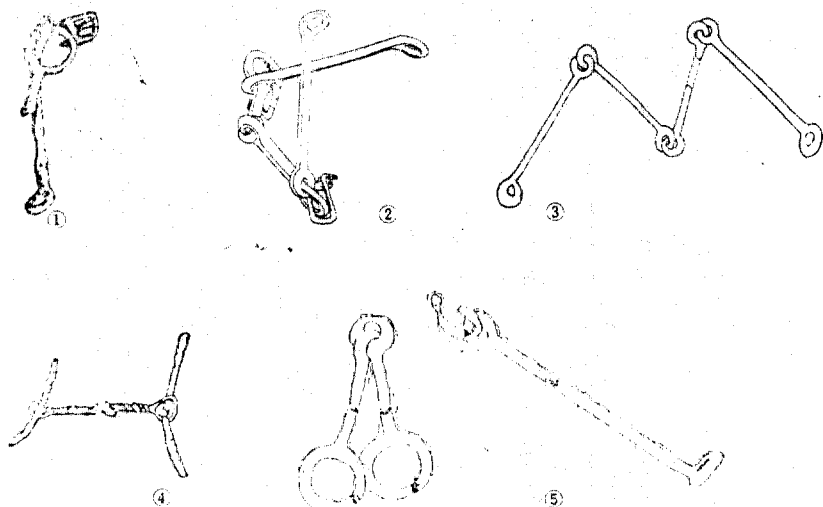


圖 1. I字形 재갈

- ① 皇吾洞 第14號墳 第1副櫛出土 ② 大邱飛山洞 37號墳出土 ③ 皇南洞 110號墳 副櫛出土 ④ 夫租藏君墓出土 ⑤ 淸州新鳳洞 地表採集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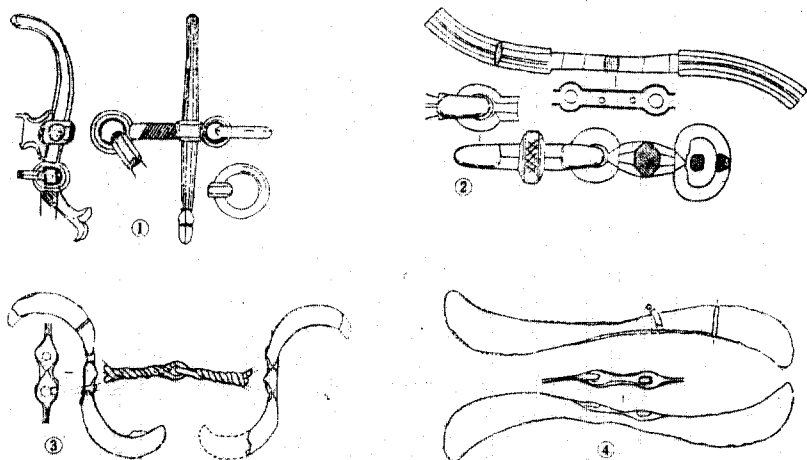


圖 2. S字形 재갈.

- ① 慶州內南面塔里出土 ② 石巖里 第9號墳出土 ③·④ 大邱坪里洞出土

字形金具만 남아 있으며(圖 1—①·②), 더구나 재갈멈추개가 가죽끈 등으로 연결된 경우에는 이것들이 모두 부식되어 재갈멈추개의 흔적조차 남아 있지 않은 경우가 많다²⁾(圖 1—③·⑤).

I자형 재갈의 재갈쇠는 두 개 또는 세 개의 철봉을 고리로 연결한 것과 두 가닥의 쇠줄을 꼬아서 만든 것 등이 있다. 특히 세 마디로 된 재갈쇠의 경우는 가운데 마디에 홈집을 낸 원형의 돌기가 부착되어 있다.³⁾

S자형 재갈은 재갈멈추개가 S자 모양으로 되어 있다. 이 유형의 재갈멈추개는 청동·아연·철 등으로 만들어졌는데, 그 형태가 S字形인 것과(圖 2—①·②), 재갈멈추개의 양끝이 판형으로 넓어져서 마치 프로펠러와 같이 생긴 것 등이 있다(圖 2—③·④). 이러한 재갈멈추개는 그 대부분이 재갈쇠 양 끝의 고리에 끼워져 있으나, 예외적으로 재갈쇠에 접합되어 있는 경우도 있다(圖 2—①).

S자형 재갈의 재갈쇠도, I자형 재갈의 그것과 마찬가지로, 두 마디 또는 세 마디의 철봉을 고리로 연결한 것과 두 가닥의 쇠줄을 꼬아서 만든 것 등이 있다. 그런데 두 마디로 된 재갈쇠의 경우는 철봉의 돌레에 나선 모양의 홈을 파놓은 특징이 있다(圖 2—①).

원형 재갈은 재갈쇠의 양 끝 고리에 원형의 재갈멈추개가 연결되어 있으며, 그 재질은 거의 예외없이 철이다. 이 유형의 재갈멈추개는 단순한 원형으로 재갈쇠의 양 끝 고리를 관통하여 연결한 것도 있고(圖 3—①), 재

2) 金基維氏는 이러한 재갈을 圓鐵鑢馬銜으로 분류하고, 재갈쇠 양 끝의 원형 고리가 재갈멈추개의 역할을 한다고 하였다(金基維, 『韓國古代의 馬銜考』, p. 395). 그러나 한국마사회 승마훈련원 김홍철 교관의 말에 따르면, 이와 같이 재갈쇠에 고착되어 있는 고리는 고삐를 당길 경우 말의 입으로 쉽게 딸려 들어가기 때문에 재갈멈추개의 역할을 하기가 어렵다고 한다. 이렇게 볼 때, 그와 같은 유형의 재갈은, 필자가 주장한 바와 같이, 유기물질로 된 재갈멈추개가 부식되어 형태가 남아 있지 않은 것으로 보는 편이 보다 타당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이 자리를 빌어 김홍철 교관에게 감사의 뜻을 표한다.

3) 이와 같은 형태의 재갈쇠를 가진 재갈은 古新羅의 고분에서는 아직 출토된 예가 없고, 단지 樂浪時代 고분인 貞柏里第127號墳(王光墓) 등에서 발견된 바 있다(梅原末治·藤田亮策, 『朝鮮古文化綜鑑』 3, 1959, p. 4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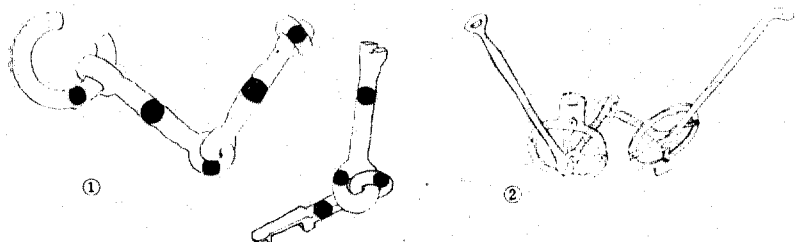


圖 3. 圓形 재갈

① 味鄒王陵地區 第9區域(A號 破壞古墳) 第2墓槨出土
② 義城塔里古墳出土 ③ 高靈池山洞 45號墳 1號石室出土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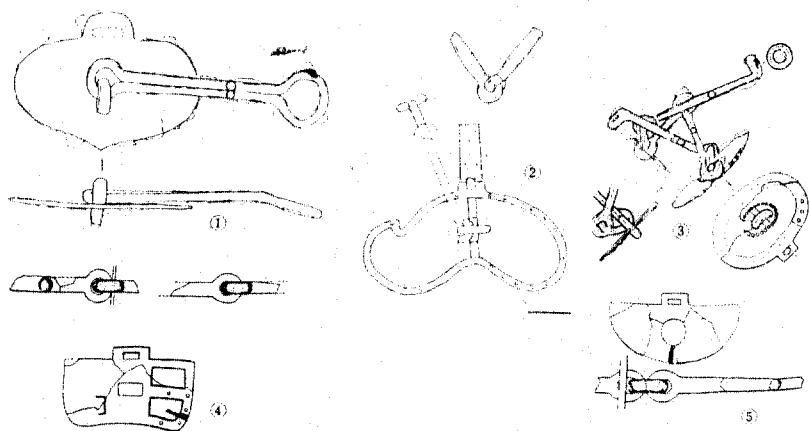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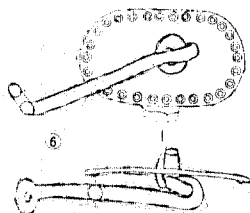


圖 4 板形 재갈

① 味鄒王陵 第7地區 第7號墳出土
② 海南月松里 造山古墳出土
③ 陝川礪溪 다 A號墳出土
④·⑤ 飾履塚出土
⑥ 味鄒王陵 第7地區 第4號墳出土



갈쇠 양 끝의 고리에 연결하기 위하여 원형의 재갈멈추개 내부에 十字 또는 工字 모양의 고리를 덧댄 것도 있다(圖 3—②·③). 그리고 재갈쇠는 원형의 단면을 가진, 특별한 홈이나 돌기가 없는 밋밋한 두 개의 철봉을 고리로 연결한 것이 대부분이다.

판형 재갈은 이제까지 살핀 유형의 재갈들과는 달리 재갈멈추개가 판으로 되어 있으며, 그 형태에 따라 長方形·橢圓形·半圓形·心葉形·S字板形 등으로 분류될 수 있다. 그런데 이들 가운데 S자 판형 재갈은 新羅나 高句麗의 고분에서는 발견된 예가 없고, 百濟와 伽倻의 고분에서 각각 2개와 4개씩 그 예가 발견된 바 있다(表 2·3 참조).

재갈멈추개는 철제가 많으며, 철판 위에 금동판을 씌운 것도 있다. 그리고 이것은 판 가운데에 구멍을 뚫어 재갈쇠에 끼우기도 하고(圖 4—①·⑤·⑥), 또는 그 구멍을 가로질러 한 가닥의 쇠줄을 접합시키고 거기에 재갈쇠의 고리를 걸기도 하였다(圖 4—③). 재갈쇠의 형태는 원형 재갈의 그것과 유사하다.

이상에서 살펴 본 각 유형의 재갈들은 모두 말을 제어하는 데 사용되었지만, 그 기능에 있어서는 큰 차이점을 가지고 있었다. 먼저, I자형 재갈과 S자형 재갈의 경우는, 고삐를 좌우로 당길 때 재갈멈추개가 말의 입을 강하게 압박함으로써 말에게 큰 자극을 줄 수 있다고 한다.⁴⁾ 그리고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러한 유형의 재갈은 그 재갈쇠의 대부분이 두 줄로 꼬이거나 홈이 새겨지거나, 또는 원형의 돌기가 부착되어 있는데, 이는 말의 혀에 자극을 주기 위한 것이며, 오히려 재갈멈추개보다도 말에게 더 큰 자극을 준다고 한다.⁵⁾

이와 같은 재갈은 성질이 난폭하여 다루기 힘든 말에 착장되기도 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말을 다루는 데에 익숙하지 못한 기마자들이 말을 보

4) 김홍철 교관의 말에 따르면, 요사이에도 I자형 재갈이나 S자형 재갈과 유사한 형태인 H자 모양의 재갈이 사용되는데 말의 입을 강하게 압박하는 특징이 있다고 한다.

5) 이 점도 김홍철 교관의 말에 따른 것이다.

다 더 용이하게 제어하기 위하여 사용했을 것으로 추측된다.⁶⁾ 비교적 기마에 능숙하지 못했던 中國이나 古朝鮮·樂浪 및 百濟 지역의 주민들이 주로 I자형 재갈과 S자형 재갈을 사용했다는 사실이 이를 뒷받침해 준다.⁷⁾

한편, 원형 재갈과 판형 재갈은 말에 착장하였을 때, 재갈땀추개가 I자형 재갈이나 S자형 재갈의 그것들에 비하여 말의 입을 그다지 크게 압박하지 않는다고 한다.⁸⁾ 즉 이는 비교적 말의 입에 큰 자극을 주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대부분의 재갈쇠도 I자형 재갈이나 S자형 재갈의 그것들과는 달리 밋밋한 두 마디의 철봉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말의 혀에 큰 자극을 주지는 않았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유형의 재갈은 성격이 온순한 말에 착장되었거나 말에게 커다란 자극을 주지 않고서도 말을 잘 제어할 수 있는, 즉 기마술이 뛰어난 사람들이 주로 사용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는, 원형 재갈과 판형 재갈이 기마에 능했던 高句麗人들의 고분에서는 출토되는 반면에⁹⁾, 그렇지 못했던 中國이나 古朝鮮·樂浪 등의 지역 주민들의 무덤에서는 거의 출토되고 있지 않다는 점으로 미루어 보아도 어느 정도 짐작이 가능하지 않을까 한다.¹⁰⁾

Ⅲ. 古新羅時代 재갈의 出土現況과 그 特徵

필자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古新羅時代의 고분에서 출토된 재갈로서 그 유형을 알아 볼 수 있는 것은 50여 예에 이른다. 하지만 필자가 조사

6) 김홍철 교관의 말에 따르면, 요즈음도 기마술이 능숙한 사람들은 대부분의 경우 말의 입을 크게 자극하지 않는 재갈을 사용한다고 한다.

7) 中國과 百濟의 재갈에 대해서는, 각각 楊泓, 「中國古代馬具的發展和對外影響」, 『文物』 1984년 제 9기와 〈表 2〉를 참조하라. 그리고 필자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古朝鮮과 樂浪 제릉의 무덤에서는 I자형 재갈과 S자형 재갈 이외의 재갈은 거의 출토된 바가 없다.

8) 註5)와 같음.

9) 金基雄, 「韓國古代的 馬銜考」, pp. 395~397 및 魏存誠, 「高句麗積石墓의 類型和演變」, 『考古學報』 1987년 제 3기, p. 327 참조.

10) 註7) 참조.

〈表 1〉

古新羅古墳에서 출토된 재갈

古墳名	古墳의 類型	I字形 재갈	S字形 재갈	圓形 재갈	板形 재갈				典 據
					長方形	橢圓形	半圓形	圓心形	
味鄒王陵地區(A號 破壞古墳) 第2 梯	積石木槨墳			2					尹世英, 「味鄒王陵地區(A號 破壞古墳)發掘調査報告」, 『慶州地區古墳發掘調査報告書』 제 1 집, 1975.
" 第3 梯	"	1		1					"
皇甫洞 110號墳 主梯	"								"
" 副梯	"	1							"
味鄒王陵 第7 地區 第3 號墳	小形積石墳				1				金廷鶴・鄭澄元・林孝澤, 「味鄒王陵 第7地區古墳群發掘調査報告」, 『慶州地區古墳發掘調査報告書』 제 2 집, 1980.
" 第4號墳	竪穴式石室墳				1				"
" 第5號墳	積石木槨墳				1				"
" 第7號墳	"						1		"
味鄒王陵 前地域 A 地區 第3號墳 第1 墓梯	"			1					李殷昌, 「味鄒王陵地區 第4 地域古墳群發掘調査報告」, 同上書, 1980.
仁旺洞 18號墳 B 梯	"			1					嚴永植・黃龍澤, 『慶州仁旺洞(19・20號)古墳發掘調査報告』, 1974.
仁旺洞 20號墳	"			1					"

古墳名	古墳의 類型	I字形 形 狀	S字形 形 狀	圓形 形 狀	板形埋藏			典 據
					長方形	橢圓形	半圓形	
皇南洞 第151號墳	石室墳					2		朴日薰, 「皇南里第一五一號墳」, 『慶州皇吾里第一・三三號 皇南里第一五一號古墳發掘調査報告』, 1969.
皇吾洞 第33號墳 西梯	積石木梯墳					1		秦弘燮, 「皇吾里第三十三號墳」, 同上書, 1969.
皇吾洞 第1號墳 南梯	"						1	金元龍, 「皇吾里第一號墳」, 同上書, 1969.
皇南洞 第109號墳 第2梯	"			2				齊藤忠, 「慶州皇南里第百九號墳皇吾里, 第十四號墳調査報告」, 『昭和九年度古蹟調査報告』第一冊, 1937.
" 第4梯				1				"
皇吾洞 第14號墳 第1副梯		2						"
" 第2副梯				1				"
皇南洞 82號墳 東塚	"						1	有光教一, 「慶州皇南里第八十二號墳第八十三號墳調査報告」, 『昭和六年度古蹟調査報告』第一冊, 1935.
普門里夫婦塚 夫妻墓	"					1		朝鮮總督府編, 『朝鮮古蹟圖譜』3, 1916.

古墳名	古墳의 類型	I字形 形制	S字形 形制	板形制				典據
				圓形	長方形	半圓形	心葉形	
皇南大塚 南墳	"					7		金正基外, 『慶州皇南洞墳』發掘略報告, 1976.
" 北墳	"					4		金正基外, 『皇南大塚北墳發掘調查報告』, 1985.
壺杆塚	"					2		金載元, 『慶州路西里壺杆塚斗 銀鈴塚』, 1948.
銀鈴塚	"					1		"
路西洞 138號墳	"					1		金載元・金元龍, 『慶州路西里雙床塚・馬塚・一三八號墳調查報告』, 1955.
金鈴塚	"					3		梅原未治, 『慶州金鈴塚飾麗塚發掘調查報告』, 『大正十三年度古蹟調查報告』第5冊, 1932.
飾麗塚	"				1	1		"
金冠塚	"					1		濱田耕作・梅原未治, 『慶州金冠塚及其遺物』, 『古蹟調查特別報告』第3冊, 1924.
天馬塚	"					4		金正基外, 『天馬塚發掘調查報告』, 1974.
月城郡安溪里 43號墳	"		1	1				池健吉・趙由典, 『安溪里古墳群發掘調查報告』, 1981.
慶州塔里出土	土藏墓로 정*	1						藤田亮策・梅原未治・小泉順夫, 『南朝鮮に於ける漢代の遺蹟』, 『大正十一年度古蹟調查報告』第二冊, 1925.
朝陽洞 II 地區 1號墳	土藏墓	1						崔鍾圭, 『慶州市朝陽洞遺蹟發掘調查概要とその成果』, 『古代文化』35, 1983.

* 보고서에 따르면, 제갈이 출토된 곳에 특별한 墓標 시설이 없었다고 함. 이로 미루어 토광묘로 추정됨.

하지 못한 것, 유형을 알 수 없는 것, 또는 아직 보고되지 않은 것까지 염두에 둔다면 그 수는 훨씬 더 늘어날 것이다. 이는 高句麗나 百濟나 伽倻의 고분에서 조사된 예보다 훨씬 많은 것이다. 필자가 조사한 바를 표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表 1).

〈表 1〉에 따르면, I자형 재갈과 S자형 재갈은 6예로서, 조사된 전체 재갈의 약 11%를 점하고 있으며, 원형 재갈과 판형 재갈은 49예로서, 전체의 약 89%를 차지하고 있다. 즉 후자의 출토 비율이 전자의 그것보다 월등히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특징은 百濟나 伽倻의 고분에서 출토된 재갈들의 경우와 비교해 볼 때 더욱 두드러진다(表 2 및 3). 百濟의 고분에서 출토된 재갈을 보면(表 2), S자형 재갈은 발견된 예가 없고, I자형 재갈이 10예(약 63%), 원형 재갈과 판형 재갈이 6예(약 37%)이다. 그리고 〈表 3〉에 의하면, 伽倻의 고분에서 출토된 재갈은 I자형 재갈과 S자형 재갈이 15예(약 42%)이고, 원형 재갈과 S자형 재갈이 21예(약 58%)이다. 즉 伽倻의 경우는, I자형 재갈·S자형 재갈과 원형 재갈·판형 재갈이 그 출토 비율에 있어서 크게 차이가 나지 않으며 百濟의 경우는 오히려 전자의 출토 비율이 후자의 그것보다도 훨씬 높다.

이러한 사실은 古新羅人들이 같은 시기의 百濟人들이나 伽倻人들에 비하여 대체로 기마술이 뛰어난 자들이었음을 말해주는 것으로 보아도 좋지 않을까 한다.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원형 재갈이나 판형 재갈은 주로 기마에 능숙한 사람들이 사용했다고 여겨지기 때문이다.

한편, 〈表 1〉을 자세히 살펴 보면, 古新羅時代의 재갈의 유형은 墓制와 깊은 관련을 맺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유형에 따른 재갈의 출토 현황을 墓制別로 분류하면 다음과 같다(表 4).

S자형 재갈은 2예가 발견되었는데 모두 土墳墓에서 출토되었다. 그리고 원형 재갈과 판형 재갈은 37예 가운데 味鄒王陵 第7地區 第4號墳(竪穴式石室墳)과 皇南洞 第151號墳(石室墳)에서 발견된 3예를 제외한 나

〈表 2〉 百濟古墳에서 출토된 재갈

古墳名	古墳의 類型	I字形 재갈	S字形 재갈	圓形 재갈	板形 재갈			典 據
					長方形	橢圓形	半圓心形	
任實 金城里 A 號墳	石槨墳	1						全榮來, 「任實, 金城里 石槨墓群」, 『全北遺蹟調查報告』 3, 1974.
清州新鳳洞 3 號墳	土壙墓	1						이용조·차용길, 『清州新鳳洞百濟古墳群發掘調查報告書』, 1983.
" 5 號墳	"	1						"
" 6 號墳	"	1						"
" 7 號墳	"				1			"
" 8 號墳	"	1						"
" 14 號墳	"	1						"
清州新鳳洞地表 吳民家採集遺物		3		1				"
海南月松里造山古墳	橫穴式石室墳							徐聲勳·成洛俊, 『海南月松里造山古墳』, 1984.
公州宋山里古墳	石室墳							伊藤秋男, 「公州宋山里古墳出土의 馬具」, 『百濟文化』 12, 1979.
連山新興里 1 號墳	豎穴式石槨墳	1						尹武炳, 「連山新興里 百濟古墳과 그 出土遺物」, 『百濟文化』 7-8 合卷, 1975.
連山表正里古墳				1				洪思俊, 「百濟의 長劍과 馬具類의 新例」, 『考古美術』 77, 1966.
夢村土城出土				1				金元龍, 『夢村土城發掘調查報告』, 1985.

〈表 3〉 伽倻古墳에서 출토된 재갈

古墳名	古墳의 類型	I字 形 재갈	S字 形 재갈	圓形 재갈	板形재갈			典 據
					長方 形	半圓 形	心葉 形	
陝川礪溪가 A號墳	石梯墳				2			김정완外, 『陝川礪溪堤古墳群』, 1987.
" " A號墳	" "				1			" "
大邱坪里洞出土	土墳墓로 추 정*	2						尹容鎭, 「韓國青銅器文化研究—大邱坪里洞出土一括遺物檢討—」, 『韓國考古學報』 10-11, 1981.
義城塔里古墳	堅穴式石室墳	1	1					金載元·尹武烈, 『義城塔里古墳』, 1962.
大邱飛山洞 34號墳	石梯墳	1			1			小泉顯夫·野水健, 「慶尙北道達成郡達西面古墳調査報告」, 『大正十二年年度古蹟調査報告』 第一冊, 1930.
" 37號墳	" "	3						" "
大邱內唐洞 50號墳	" "	1						" "
" 55號墳	" "				1			" "
金海 禮安里 39號墳	堅穴式石梯墳		1					申敬澈外, 『金海禮安里古墳群』 I, 1985.
" 57號墳	" "	1						" "
東萊福泉洞 10號墳	堅穴式石室墳							鄭澄元·申敬澈, 『東萊福泉洞古墳群』 I, 1983.
咸陽白川里 1-3號墳	" "				1			鄭澄元·申敬澈外, 『咸陽白川里 1號墳』, 1986.
晉州玉峯 第7號墳				1				朝鮮總督府編, 『朝鮮古蹟圖譜』 3, 1916.
昌寧校洞 11號墳	橫穴式石室墳						1	六澤旺光·馬日順, 「昌寧校洞古墳群」, 『考古學雜誌』 60-4, 1975.
東萊福泉洞 第1號墳	堅穴式石室墳						1	金東鎭, 『東萊福泉洞 第1號古墳發掘調査報告』, 1971.

古墳名	古墳의 類型	板形세갈					典 據
		I字形세갈	S字形세갈	圓形세갈	長方形	半圓形	
造塔洞 甬山 夫婦塚 1號墳	竪穴式石槨墳	1					秦弘燮, 『造塔洞古墳調查發掘報告』, 1975.
昌寧佳洞 A地區 44號墳 主室	橫口式石室墳	1					鄭澄元, 『A地區古墳發掘調查報告』, 『昌寧佳洞古墳發掘調查報告』, 1977.
高靈池山洞 44號墳 石室	竪穴式石室墳				1		尹容鎮, 『高靈池山洞 44號古墳發掘調查報告』, 『大伽倻古墳發掘調查報告』, 1979.
" 第25號石槨	竪穴式石槨墳					1	"
高靈池山洞 45號墳 第1號石室	竪穴式石室墳						金鍾範, 『高靈池山洞第45號古墳發掘調查報告』, 同上書, 1979.
梁山夫婦塚	橫穴式石室墳		1				小川敬吉, 『梁山夫婦塚及其遺物』, 『古墳調查特別報告』第5冊, 1927.
거창 말흘리 2號墳	竪穴式石槨墳	1					한영희 · 김정환, 『거창 말흘리 고분』, 『국립박물관 고적조사보고』제17책, 1985.
陝川梧林洞 171號墳	"	1					沈奉謹, 『陝川鳳溪里古墳群』, 1986.
慶尙南道出土							伊藤秋男, 『公州朱山里古墳出土의 馬具』, 『百濟文化』12, 1979.
昌寧出土							"
星州星山洞 58號墳	竪穴式石室墳			1			金世基, 『星州星山洞古墳一第38·39·57·58·59號墳調查概要』, 『星州星山洞古墳特別展圖錄』, 1988.
傳洛東江流域出土		1					梅原未治 · 藤田亮策, 『朝鮮古文化綜覽』第1卷, 1944.
傳金海郡酒村面良洞里出土		I字形 또는 S字形으로 된 槨 1개 출토					國立慶州博物館編, 『菊隱李養蒙文集文化財』, 1987.

* 보고서에 따르면, 세갈이 출토된 곳에 특별한 墓標 시설이 없었다고 함. 이로 미루어 토광묘로 추정됨.

〈表 4〉

墓制別 재갈출토현황

墓制 재갈의 유형	土槨墓	積石木槨墳	石室墳
I 자형	2	4	3
S 자형			
원 형		12	
판 형		34	

머지 34 예가 積石木槨墳에서 출토되었다.

I 자형 재갈은 古新羅時代의 재갈로서는 드문 예에 속한다. 이 유형의 재갈은 총 4 예가 발견되었는데, 모두 이제까지 발굴된 古新羅時代의 적석목곽분 가운데 가장 이른 시기의 것들로 알려진 皇吾洞 14 號墳과 皇南洞 110 號墳에서만 출토되었을 뿐, 그보다 늦은 시기의 적석목곽분에서는 발견된 예가 없다.¹¹⁾ 이 점으로 미루어 보면, I 자형 재갈이 적석목곽분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었다고 보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한다. 오히려 이 유형의 재갈은 적석목곽분이 축조되기 이전의 묘제인 토광묘와 보다 깊은 관련을 맺고 있었던 것으로 적석목곽분이 축조되기 시작한 후 오래되지 않은 시기에 소멸된 것이 아닐까 생각되는 것이다.¹²⁾ 이는, 비록 지금까지 古新羅의 토광묘에서는 발견된 예가 없지만, 古朝鮮·樂浪 계통의 토광묘인 貞柏里 第127號墳¹³⁾과 百濟 고분인 淸州新鳳洞 토광묘¹⁴⁾에서 다수의 I 자형 재갈이 출토되었다는 점으로 미루어 보아도 어느 정도 짐작이 가능하리라 믿는다.

이상의 논의를 통하여 볼 때, I 자형 재갈과 S 자형 재갈은 토광묘와, 원

11) 崔秉鉉氏의 견해에 의하면, 이 무덤들은 古新羅의 적석목곽분 가운데 가장 이른 시기인 第1期에 해당하며, 그 구체적인 시기는 4세기 전반~4세기 중엽으로 편년하였다(崔秉鉉, 「古新羅 積石木槨墳의 變遷과 編年」, 『韓國古考古學報』 10·11, 1981, p. 176 및 p. 214).

12) 토광묘에 대해서는 韓炳三, 「墓制」, 『한국사』 1, 1973 과, 金貞培, 「韓國의 鐵器文化」, 『韓國史研究』 16, 1977 과, 崔秉鉉, 「新羅 土槨墓·積石木槨墳」, 『韓國史論』 17, 1987 을 참조.

13) 註3)과 같음.

14) 이용조·차용걸, 『淸州新鳳洞百濟古墳群發掘調査報告書』, 1983.

형 재갈과 판형 재갈은 적석목곽분과 깊은 관련을 맺고 있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다시 말하면, 토광묘 축조자들은 I자형 재갈과 S자형 재갈을, 적석목곽분 축조자들은 원형 재갈과 판형 재갈을 주로 사용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Ⅳ. 古新羅時代 재갈의 流入과 積石木槨墳築造者들

—新羅의 國家形成과 關聯하여—

우리는 앞에서 古新羅時代 재갈의 제유형과 그 출토 현황 및 특징 등에 대하여 살펴 보았다. 그 결과, I자형 재갈과 S자형 재갈은 토광묘 축조자들에 의해서 원형 재갈과 판형 재갈은 적석목곽분 축조자들에 의해서 주로 사용되었다는 점과 古新羅人들이 대체로 기마에 능숙한 자들이었다는 점 등을 알 수 있게 되지 않았나 한다. 이제 본장에서는 이와 같은 검토를 토대로 하여, 古新羅時代에 사용된 여러 유형의 재갈이 언제 어떤 사람들에 의해 유입되고, 또 어떻게 변천되어 갔는지를 新羅의 국가 형성과 관련하여 살펴 보기로 하자.

이제까지의 고고학적인 발굴 성과를 통하여 볼 때, 古新羅時代에 재갈이 최초로 유입된 것은 경주 지역에 토광묘가 축조되기 시작한 것과 거의 때를 같이한다고 생각된다. 古新羅時代의 재갈 가운데 가장 이른 시기의 것인 S자형 재갈이 慶州 朝陽洞과 塔里의 토광묘에서 출토되었고,¹⁵⁾ 또한 경주 지역에 토광묘가 출현하기 이전에 축조된 支石墓나 石棺墓에서는 재갈이 출토된 예가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볼 때, 古新羅時代에 최초로 재갈을 유입한 사람들은 토광묘 축조인들이었다는 이야기가 된다.

경주 지역의 토광묘가 古朝鮮 계통의 그것이었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¹⁶⁾ 그런데 이러한 사실과 관련하여 다음 기록이 우리의 주목을

15) 〈表 1〉 참조.

16) 崔秉鉉, 「新羅 土槨墓・積石木槨墳」, p. 353.

끈다.

始祖 姓朴氏 諱赫居世 前漢孝宣帝五鳳元年甲子(B.C. 57)四月丙辰^{一曰正月十五日}即位
號居西干 時年十三 國號徐那伐 先是 朝鮮遺民 分居山谷之間爲六村 『三國史記』
1 新羅本紀 1 始祖 赫居世居西干 즉위년)

위 기록에 따르면, 古朝鮮의 유민들이 경주 지역에 이주하여 村을 형성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들은 경주 지역에 최초로 토광묘를 축조하기 시작한 사람들이었다고 보인다.¹⁷⁾ 그리고 이들의 이주 시기는, 위 기록에는 보이지 않지만, 古朝鮮이 멸망한 B.C. 195 년이나 衛氏朝鮮이 멸망한 B.C. 108 년에서 그다지 멀지 않은 시기의 어느 때였을 것으로 여겨진다.

이렇게 본다면, 古新羅時代의 재갈은 토광묘를 축조하던 古朝鮮—衛氏朝鮮까지 포함—계통의 유민들에 의하여 B.C. 2세기 경에 최초로 유입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들이 주로 사용하던 재갈이 I자형 재갈과 S자형 재갈이었음은 이미 앞에서 지적한 바 있다. 아울러 말을 타는 데 있어서 재갈이 거의 필수적인 마구였다는 점을 염두에 두면, 古新羅時代의 기마 풍습도 재갈과 마찬가지로 그들에 의해서 이 시기에 유입된 것이 아닐까 생각된다.

그러나 古新羅에 최초로 유입된 I자형 재갈과 S자형 재갈은 그 당시에 크게 유행되지 못했으며, 기마술도 널리 보급되지 못했던 것 같다. 이제까지 토광묘에서 출토된 이러한 유형의 재갈이 단 2예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그 밖의 마구들도 출토된 예가 극히 희소하다는 것이 이를 말해준다. 그리고 그 원인은 재갈과 기마술을 들여온 古朝鮮 계통의 이주민들이 대체로 기마에 능숙하지 못한 농경민들이었다는 데에서 찾을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古新羅時代에 기마술이 널리 보급되고, 그에 따라 재갈의 사용이 보다 보편화된 것은 원형 재갈과 판형 재갈이 유입되고 아울러 적석목곽분이

17) 李鍾旭, 『新羅國家形成史研究』, 1982, p.16 참조.

축조되기 시작한 때부터였다고 생각된다. 이 점은,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적석목곽분에서 비로소 상당량의 마구가 출토되고 있으며,¹⁸⁾ 그 가운데에서도 대부분의 재갈이 원형이나 판형이었다는 점으로 미루어 보아도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원형 재갈과 판형 재갈은 어떤 사람들이, 언제, 어디에서 들여온 것일까. 이 점은 이와 같은 유형의 재갈들이 집중적으로 출토되는 적석목곽분의 생성 과정을 살펴 봄으로써 그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 한다.

일반적으로 古新羅時代의 적석목곽분은 시체를 안치하는 곳이 堅穴式木槨으로 되어 있고, 목곽의 주위와 위에 냇돌(川石)을 쌓았으며, 그 積石部 위에 다시 봉토를 덮은 고분을 말한다. 즉, 이 고분은 크게 목곽·적석부·봉토의 3부분으로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적석목곽분은 경주 시내의 평지와 그 밖의 한정된 지역에만 분포되어 있을 뿐, 주위의 百濟·高句麗·中國 등의 지역에서는 그 예를 찾아볼 수 없다. 이와 같은 사실은 적석목곽분의 묘제 자체가 외부에서 유입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하는 것으로서, 바꾸어 말하면, 이 묘제가 古新羅의 내부에서 생성된 것임을 의미하는 것으로 믿어진다.

여기에서 이 점과 관련하여 적석목곽분이 토광묘의 후속 묘제였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사실, 토광묘와 적석목곽분은 구조상 유사점을 많이 가지고 있다. 특히 두 묘제 모두 일반적으로 시체를 안치하는 곳이 수혈식 목곽으로 되어 있다는 점과 봉토를 씌웠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단, 두 묘제 사이의 특징적인 차이점은 적석목곽분이, 선행 묘제인 토광묘에는 없던 적석부를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그런데 이 적석부의 기원은 高句麗 積石墓의 그것에서 찾을 수 있지 않을까 한다. 이는, 전자와 후자의 형태가 유사하다는 점과, 古新羅의 적석

18) 崔秉鉉, 「古新羅 積石木槨墳 研究—墓型과 그 性格을 중심으로—(上)·(下)」, 『韓國史研究』 31·32, 1980·1981, 表 11 참조.

목곽분에서 출토된 유물들이 高句麗의 적석묘에서 출토된 그것들과 마찬가지로 북방 문화적인 성격이 강하며,¹⁹⁾ 그 가운데에서도 특히 북방 기마 민족 문화의 산물인 마구가 다량으로 출토된다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보아도 짐작이 가리라 믿는다.²⁰⁾

이상의 논의에 큰 무리가 없다면, 결국 적석목곽분은 선행 묘제인 토광묘와 후에 高句麗에서 유입된 적석묘가 구조적으로 결합된 묘제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그 당시 적석묘를 축조하던 高句麗 계통의 사람들이 경주 지역에 이주하였으며, 나아가 원형 재갈과 판형 재갈도 기마술이 뛰어난 그들에 의해서 高句麗에서 유입되었음을 의미한다고 여겨진다. 古新羅의 적석목곽분에서 출토된 것과 유사한 형태의 원형 재갈과 판형 재갈이 高句麗의 적석묘인 集安萬寶汀 78號墳, 集安七星山 95號墳, 桓仁高力墓子村 19號墳 등에서 발견되었다는 점도 이를 더욱 뒷받침하여 준다.²¹⁾

그렇다면, 이제 원형 재갈과 판형 재갈이 언제 古新羅에 유입되었는지를 살펴 볼 차례이다. 그런데 이 점은 高句麗 계통의 사람들이 언제 경주 지역에 이주하였는지를 밝히는 것과 다르아니다. 이를 위하여 적석목곽분의 적석부의 구조와 형태를 검토하고 그것이 여러 유형의 高句麗 적석묘 가운데 어느 것과 연관 관계가 있는지를 살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적석목곽분에서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냇돌로 적석부를 축조하였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냇돌에 점토를 섞어서 쌓기도 하고, 냇돌을 쌓은 후 그 표면에 점토층을 덮어 석우기도 하였다. 하지만 적석부를 축조하기 위하여 그 低部에 墓壇 등을 조성하지는 않고, 지면에서부터 바로 돌을 쌓아 올렸다. 적석부의 형태는 적석목곽분의 유형에 따라 어느 정도 차이

19) 李仁淑, 「古新羅期 裝身具에 대한 一考察」, 『歷史學報』 62, 1974, 崔秉鉉, 「古新羅 積石木槨墳의 變遷과 編年」, 鄭澄元・申敬澈, 『東萊福泉洞古墳群』 I, 1983 참조.

20) 註17)과 같음.

21) 註9)와 같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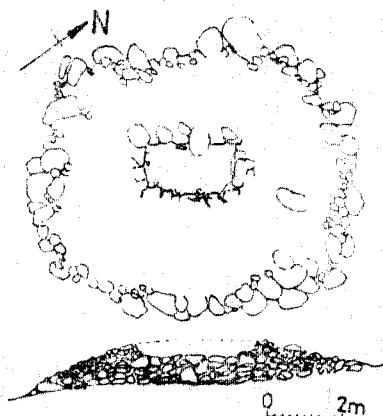


圖 5. 集安縣下活龍村 第8號墳平·断面圖

가 있지만, 대체로 方錐形·圓錐形·長方錐形을 이루고 있다.

이와 같은 구조와 형태의 적석부를 가지고 있는 高句麗 적석묘로서 集安縣下活龍村 第8號墳을 들 수 있다²²⁾(圖5). 이 무덤은 남쪽으로 경사진 언덕 위에 위치하고 있으며, 동서 너비가 7.5m, 남북 길이가 9.5m. 높이가 0.5m~1.2m 인데, 보존 상태가 상당히 양호하다. 축조 방법에 대하여 살펴 보면, 먼저 지면에 직경 50cm 정도되는 냇돌(川石)을 깔았는데, 그 평면은 원형에 가깝다. 그 다음, 모래와 냇돌을 섞어서 쌓아 지표의 중간에서 직접 墓墳을 만들었다. 그리고 그 上部는 작은 냇돌로 쌓았다. 적석부의 형태는 대체로 원추형이라고 할 수 있다.

集安縣下活龍村 第8號墳과 같은 유형의 적석묘는 ‘無基壇積石塚’²³⁾. ‘無壇石墳墓’²⁴⁾. ‘積石墓’²⁵⁾. ‘川原石積石塚’²⁶⁾ 등으로 분류되고 있는데,

22) 集安縣文物保管所, 「集安縣上·下活龍村高句麗古墓清理簡報」, 『文物』 1984년 제 1기.

23) 정찬영, 「고구려의 적석총에 대하여」, 『문화유산』 1961년 5호.

24) 魏存誠, 앞의 논문.

25) 李殿福, 「集安高句麗墓研究」, 『考古學報』 1980년 제 2기.

26) 정찬영, 「기원 4세기까지의 고구려묘제에 관한 연구」, 『고고민속논문집』 5, 1973.

필자는 적석부가 基壇을 가리고 있지 않다는 점을 증시하여 잠정적으로 ‘無基壇積石墓’로 부르기로 한다. 이와 같은 무기단적석묘는 高句麗 적석묘 가운데 가장 이른 시기의 墓型으로, 대체로 B.C. 2세기 경부터 朱蒙이 高句麗를 전국한 때(B.C. 37)를 전후한 시기까지 유행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²⁷⁾ 그리고 이 시기에 뒤이어 보다 발전된 묘형인 方壇積石墓(方壇石墳墓)와 方壇階段積石墓(方壇階段石墳墓)가 출현하여 유행되면서 이 묘형은 점차 소멸되어 갔던 것 같다.

이상의 검토를 통하여 보면, 古新羅 적석목곽분의 적석부는 高句麗 적석묘의 여러 묘형 가운데 가장 초기의 묘형인 무기단적석묘의 영향으로 생긴 것이며, 이 묘형이 경주 지역에 유입된 것은 늦어도 高句麗에서 방단적석묘와 방단계단적석묘가 유행되기 전인 B.C. 1세기 경이었다고 보아서 좋을 듯하다.²⁸⁾ 이는, 다시 말하면, 원형 せがれ와 판형 せがれ를 사용하던 高句麗 계통의 이주민들이 이 시기에 경주 지역에 들어왔음을 뜻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와 같은 사실과 관련하여 다음 기록이 주목된다.

前漢地節元年壬子古本云建武元年又云建元三年等皆誤三月朔 六部祖各率子弟 俱會於關川岸上 議曰我輩上無君主臨理蒸民 民皆放逸 自從所欲 盡覓有德人 爲之君主 立邦設都乎 於是乘高南望 楊山下蘿井傍 異氣如電光垂地 有一白馬跪拜之狀 尋撿之 有一紫卵一云青大卵 馬見人長嘶上天 剖其卵得童男 形儀端美 驚異之 浴於東泉東泉寺在詞臘野北 身生光彩 鳥獸率舞 天地振動 日月清明 因名赫居世王(中略) 位號曰居瑟邯(下略)(『三國遺事』1 紀異 2 新羅始祖 赫居世王)

위 기록은 赫居世의 등장에 관한 설화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데, 그는

- 27) 무기단적석묘의 존속 기간에 대한 견해들은, 魏存誠, 앞의 논문, pp. 322~324 및 田村晃一, 「高句麗積石塚の構造と分類について」, 『考古學雜誌』 68-1, 1982, pp. 26~32에 정리되어 있다. 필자는 정찬영·李殿福·方起東氏의 견해에 따랐다.
- 28) 방단적석묘와 방단계단적석묘는 늦어도 A.D. 1세기 초기에는 나타났다고 한다(李殿福, 앞의 논문, pp. 171~173 및 魏存誠, 앞의 논문 pp. 324~325 참조).

기마술이 뛰어난 북방 계통 이주민의 우두머리로 이해되고 있다.²⁹⁾ 그리고 그가 경주 지역에 이주해온 것은 前漢 地節元年(B.C. 69)의 일로 되어 있다.

이러한 점들을 염두에 두고 보면 앞서 살펴 본, 원형 재갈과 판형 재갈을 사용하고 무기단적석묘를 축조하던 高句麗 계통의 이주민들은 곧 위 기록에 보이는 赫居世 집단을 가리키는 것이 아닐까 생각된다. 무엇보다도 두 집단이 모두 이주민 집단으로서 기마민족적인 성격을 띠고 있었고, 또한 경주 지역에 이주한 시기가 거의 일치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결국 원형 재갈과 판형 재갈을 古新羅에 가지고 들어온 高句麗 계통의 이주민들이 곧 赫居世를 중심으로 新羅의 국가 형성을 주도한 주인공들이었다는 이야기가 된다.

그렇지만 赫居世를 중심으로 한 高句麗 계통의 이주민 집단이 경주 지역에 거주하기 시작한 초기에는 그 규모가 그다지 크지는 않았을 것으로 생각된다.³⁰⁾ 그런데,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赫居世 집단이 이주해 오기 전에 경주 지역에는 이미 古朝鮮의 유민들이 중심이 되어 6村을 형성하고 있었다.³¹⁾ 아마 그들은 赫居世 집단이 이주해 올 당시에는 각 村의 지배 세력이 되어 있었다고 믿어진다. 이에 규모가 작고 토착적인 기반도 미약했던 赫居世 집단은 그들과 정치적인 연합을 이루면서 점차 자신들의 세력을 성장시켜 나갔던 것으로 보인다.³²⁾ 곧 이어 赫居世가 경주 지역을 중심으로 한 斯盧國의 왕이 되었지만, 그와 같은 관계는 대체로 A.D. 1세기 중엽까지 지속되었던 것 같다.³³⁾

이 시기의 두 집단 간의 정치적 연합 관계를 잘 반영하고 있는 것이 바

29) 金哲濂, 「新羅上古世系와 그 紀年」, 『歷史學報』 17·18 합집, 1962; 『韓國古代社會研究』, 1975, pp. 72~73.

30) 李鍾旭, 앞의 책, p. 69.

31) 『三國史記』 1 新羅本紀 1 始祖朴赫居世居西干 즉위년.

32) 李鍾旭, 앞의 책, p. 69.

33) 李鍾旭, 앞의 책, pp. 69~70.

로 적석목곽분이라고 생각된다. 즉, 시기를 달리하여 경주 지역에 이주한 두 집단인 高句麗 계통의 赫居世 집단과 古朝鮮 계통의 이주민 집단이 정치적 연합을 이루게 되자, 이와 작하여 그들의 묘제인 적석묘와 토광묘가 구조적으로 결합하여 새로운 묘제인 적석목곽분이 생성되게 되었다고 믿어지는 것이다.³⁴⁾

- 34)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보면, 古新羅의 적석목곽분이 축조되기 시작한 것은 늦어도 A.D. 1세기 중엽 이전의 일이다. 한편, 古新羅 적석목곽분의 기원에 관한 기존의 연구 성과는 이미 崔秉鉉氏가 잘 정리하였고, 또 각각의 문제점을 지적·비판한 바 있다(崔秉鉉, 「新羅土墳墓·積石木槨墳」, pp. 390~392). 따라서 필자는 그것을 여기에서 다시 언급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으며, 다만 崔秉鉉氏의 견해를 소개하고 그와 관련된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는데 그치고자 한다. 氏의 견해를 요약하면, 古新羅 적석목곽분의 기원은 북아시아의 木槨墳文化에서 구할 수 있으며 그것이 경주 지역에 유입된 것은 4세기 전반의 일이라는 것이다(崔秉鉉, 앞의 논문, pp. 396~398). 이와 같은 그의 견해가 내포하고 있는 문제점 가운데 하나는, 氏 자신도 언급한 바와 같이, 古新羅의 적석목곽분과 북아시아의 목곽분을 연결해 주는 지리적 중간 과정이 없다는 점이다. 북아시아의 목곽분문화가 지리적으로 수천 km나 떨어져 있던 경주 지역에 유입되면서 그 중간 지역에 흔적을 남기지 않았다는 것은 좀처럼 이해가 가지 않는다. 또 한가지 지적할 것은 적석목곽분이 경주 지역에 유입되었다는 4세기 전반에 그에 상응하는 북아시아 민족의 유입이나 문화적인 충격이 기록상으로 전혀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崔秉鉉氏는 이 점과 관련하여 경주 지역에서의 적석목곽분의 출현이 金氏王朝의 성립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하였는데(崔秉鉉, 앞의 논문, pp. 389~390), 최초의 金氏王인 味鄒王이 즉위한 것은 3세기 중엽의 일이었으며, 더구나 金氏族의 시조로 알려져 있는 閼智가 경주 지역에 출현한 때는 脫解王 9년(A.D. 66)으로 되어 있으므로(『三國史記』1 新羅本紀1 脫解尼師今 9년 3월조), 그와 같은 주장에도 무리가 있지 않나 생각된다.

그러나 필자의 주장, 즉 古新羅의 적석목곽분이 高句麗 계통의 적석묘와 古朝鮮 계통의 토광묘가 구조적으로 결합된 묘제이며, 그 개시 연대가 늦어도 A.D. 1세기 중엽 이전이라고 본 데에도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지금까지 발굴된 古新羅의 적석목곽분 가운데 A.D. 1세기 중엽 이전의 것으로 보고된 예가 아직 없다는 점이다. 하지만 이 점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설명이 가능하지 않을까 한다. 첫째, 이제까지 발굴된 적석목곽분 가운데 A.D. 1세기 중엽 이전에 축조된 것이 존재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는 점이다. 이것은 현재까지 보고된 古新羅 적석목곽분의 편년이 확실한 절대 연대를 알 수 있는 자료를 기준으로 한 것이 아니라는 데 기인한다. 다시 말하면, 古新羅 적석목곽분에 대한 편년은 그 자체가 보다 자세한 연구와 적극적인 자료의 출현에 의해 얼마든지 수정될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기왕에 보고된 적석목곽

한편, 赫居世 집단이, 정치적 연합 관계를 맺고 있던 古朝鮮 계통의 이주된 집단을 누르고 斯盧國의 내부적인 통일을 이룬 후, 주위의 小國들을 정복해 나가기 시작한 것은 A.D. 1세기 후반의 일이었다고 보인다. 즉, 脫解王代(A.D. 57~A.D.80)에 于尸山國과 居柒山國을 정복하고,³⁵⁾ 婆娑王 23년(102)에는 音汁伐國·悉直國·押督國의 항복을 받았으며,³⁶⁾ 同王 29년(108)에는 比只國·多伐國·草八國을 함락시켰다.³⁷⁾ 그리고 助賁王 2년(231)과 7년(236)에는 각각 甘文國과 骨伐國을 병합하였다.³⁸⁾

그런데 이와 같은 사실들과 관련하여 다음 기록이 주목된다.

居道 失其族姓 不知何所人也 仕脫解尼師今爲干時 于尸山國·居柒山國 介居鄰

분 가운데 새로이 A.D. 1세기 이전의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 포함되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둘째, 이제까지 발굴된 적석목곽분들보다 이른 시기의 것들이 앞으로 발견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趙由典氏의 조사에 따르면, 1906년에 今西龍이 味鄒王陵 주변에서 최초로 적석목곽분을 발굴한 이후 지금까지 50여건에 걸쳐 수백 개의 적석목곽분이 발굴되었다(趙由典, 「新羅 積石木槨墳研究의 諸問題」, 『제2회 한국상고사학회 학술발표회 발표문』, 1988, pp. 68~69 및 pp. 84~97의 〈新羅 積石木槨墳 發掘調査 一覽表〉 참조), 하지만 그것은 古新羅時代에 축조된 적석목곽분 가운데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게다가 그 발굴 지역도 대체로 皇南洞·皇吾洞·仁旺洞·校洞·路東洞·路西洞 등, 경주 지역의 고분군 가운데 비교적 북쪽 지역에 한정되어 있다. 그런데 李殷昌氏와 李鍾旭氏의 견해에 의하면, 경주 지역의 고분은 五陵을 중심으로 한 南山 서북 지역에서부터 축조되기 시작하여, 그 구역이 月城 서편의 校洞과 皇南洞·皇吾洞·仁旺洞·路東洞·路西洞 등의 북쪽 지역으로 확대되어 갔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하였다(李殷昌, 『皇南洞古墳發掘調査概報』 1975, p. 31 및 李鍾旭, 「慶州의 新羅古墳」〈미발표〉 참조). 즉, 이 견해에 따르면, 五陵을 중심으로 한 南山 서북 지역이 古新羅時代 초기의 고분 축조 지역이었다는 이야기가 되는데, 『三國史記』에 五陵(蛇陵)에 赫居世王을 비롯하여 南解王·儒理王·婆娑王 등 新羅 건국 초기의 朴氏王들이 묻혔다고 기록되어 있고(『三國史記』 1 新羅本紀 1 始祖 赫居世居西于 61년 3월, 南解次女 21년 9월, 儒理尼師今 34년 10월, 婆娑尼師今 33년 10월 참조), 또 지금까지 그렇게 전해내려오고 있는 것으로 보아 그것은 타당성이 매우 크다고 생각된다. 이렇게 볼 때, 이제까지 거의 발굴된 바 없는 五陵을 중심으로 한 南山 서북 지역에서, 현재까지 보고된 것보다 이른 시기의 적석목곽분이 새로이 발견될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한다.

35) 『三國史記』 44 居道傳.

36) 『三國史記』 1 新羅本紀 1 婆娑尼師今 23년 8월.

37) 『三國史記』 1 新羅本紀 1 婆娑尼師今 29년 5월.

38) 『三國史記』 2 新羅本紀 2 助賁尼師今 2년 7월 및 7년 2월.

境 頗爲國患 居道爲邊官 潛懷并吞之志 每年一度集羣馬於張吐之野 使兵士騎之馳走以爲戲樂 時人稱爲馬叔 兩國入習見之 以爲新羅常事 不以爲怪 於是起兵馬擊其不意 以滅二國 (『三國史記』 42 居道傳)

위 기록은 脫解王代에 居道가 于尸山國과 居柒山國을 정벌할 때의 사정을 말하여 준다. 이에 따르면 居道の 휘하 병사들이 于尸山國과 居柒山國 사람들의 눈을 속이기 위하여 매년 한 번씩 張吐의 들판에서 말을 달리며 놀았음을 알 수 있다. 물론 이들은 騎兵이었을 것이다. 게다가 말을 타고 달리면서 유희를 했다는 점으로 미루어 보면, 그들은 기마술이 상당히 뛰어난 정예 기병이었다고 보아도 좋을 듯싶다. 그리고 이와 같은 기병력은 于尸山國과 居柒山國을 정복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을 것이 분명하다.

이렇게 볼 때, 斯盧國이 주위의 소국들을 정복하고, 더 나아가 三國 가운데 하나인 新羅로 발전할 수 있었던 중요한 요인 가운데 하나는 정예한 기병력이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斯盧國이 이와 같이 정예한 기병력을 보유할 수 있었던 것은 그 나라를 건국한 세력의 성격과 깊은 관련이 있다고 추측된다. 즉, 그것은 斯盧國 건국을 주도한 주인공들이 바로 기마술이 뛰어난 高句麗 계통의 이주민들이었다는 점과 불가분의 관계가 있다고 믿어지는 것이다.

V. 맺음말

지금까지 필자는 古新羅時代의 재갈과 積石木槨墳築造者들에 대하여 살펴 보았다. 이제 이 글을 통하여 알아 볼 수 있었던 몇 가지 사항을 요약함으로서 맺음말에 대신하고자 한다.

첫째, 古新羅時代의 재갈은 크게 I자형 재갈, S자형 재갈, 원형 재갈, 판형 재갈로 나눌 수 있는데 I자형 재갈과 S자형 재갈은 주로 기마에 능숙하지 못한 사람들에 의해서, 원형 재갈과 판형 재갈은 기마술이 뛰어난 사람들에 의해 주로 사용되었다.

둘째, I자형 재갈과 S자형 재갈은 토광묘와, 원형 재갈과 판형 재갈은 적석목곽분과 관련이 깊었다. 그리고 古新羅時代의 재갈의 대부분은 원형 재갈과 판형 재갈인데, 이는 古新羅인들이 비교적 기마에 능숙한 사람들이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셋째, I자형 재갈과 S자형 재갈은 토광묘를 축조하던 古朝鮮 계통의 유민들에 의해 B.C. 2세기 경에 경주 지역에 유입되었다. 반면에 원형 재갈과 판형 재갈은 적석묘를 축조하던 高句麗 계통의 이주민들에 의해 B.C. 1세기 경에 유입되었다. 또한 이들은 기마술이 뛰어났으며, 新羅의 국가 형성을 주도한 주인공들이었다. 이들은 이주 초기에는 古朝鮮 계통의 유민들과 정치적 연합을 이루었는데 그 결과 생성된 묘제가 적석목곽분이었다. 또한 그들은 뛰어난 기마술을 바탕으로 A.D. 1세기 후반 주위의 소국들을 정복하기 시작했으며 결국 그들이 세운 斯盧國은 三國의 하나인 新羅로 발전하기에 이르렀다.